

大田廣域市旗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540
----------	-----

提出年月日 : 1995. 2. .

提 出 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 (CIP)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정된 시 상징마크를 시기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主要骨子

가. 시기 및 표창장 등에 사용되는 문장, 휘장의 상징마크를 현대 감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상징마크의 꽃잎 형태는 발, 터전,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고, “火” 형태는 대전의 큰 ‘大’ 자와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발전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쾌적한 삶의 터전인 대전지역이 국토·교통·행정·과학·문화·유통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빛을 발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의 꿈과 이상을 표현한 것임.

나. 개정코자 하는 시기는 바탕은 대전옥색(PT3275C),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옥외 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 폭의 백색선을 주어 선명하게 제작토록 하였고.

다. 문장(철인)은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음.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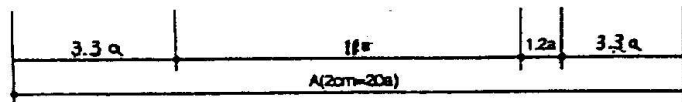
1. 바탕 : 대전옥색(PT3275C), 시 상징마크 : 밝은금색, 글씨 : 백색
2. 시 상징마크의 작도법은 별표 제4호와 같고, 옥외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폭의 백색선을 주어 선명하게 제작.

시 상징마크 설명

상징마크의 꽃잎 형태는 발, 터전,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고 “火”형태는 대전의 큰 ‘大’자와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발전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인 대전지역이 국토, 교통, 행정, 과학, 문화, 유통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빛을 발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였다.

(별표 제2호)

문 장 (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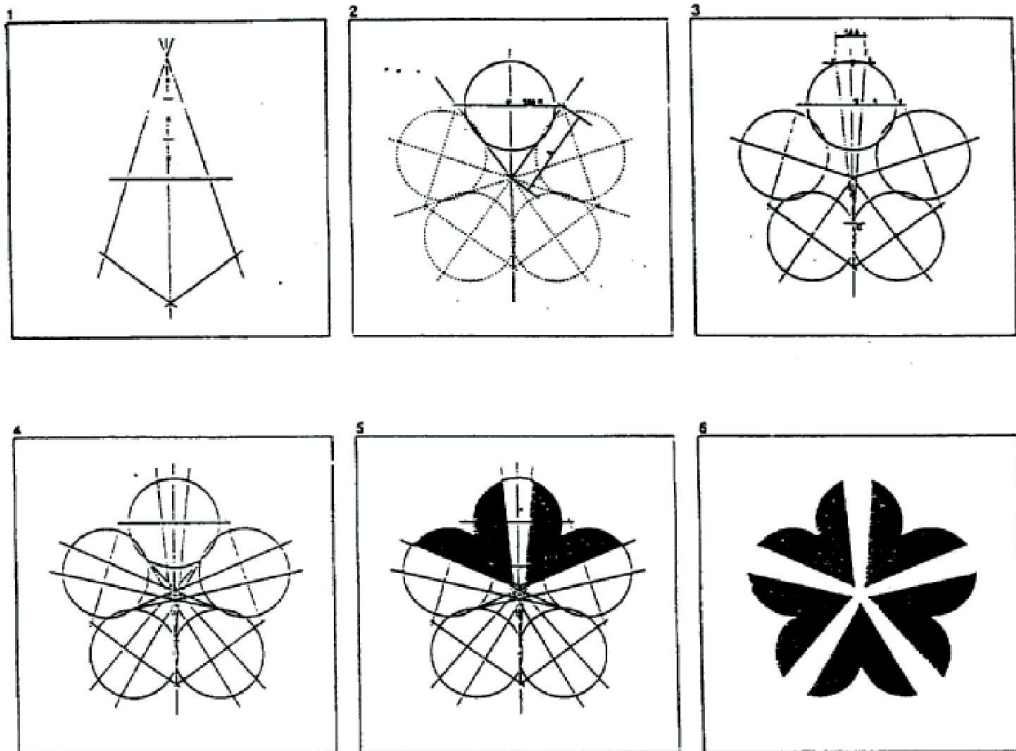
(별표 제3호)

회 장







(별표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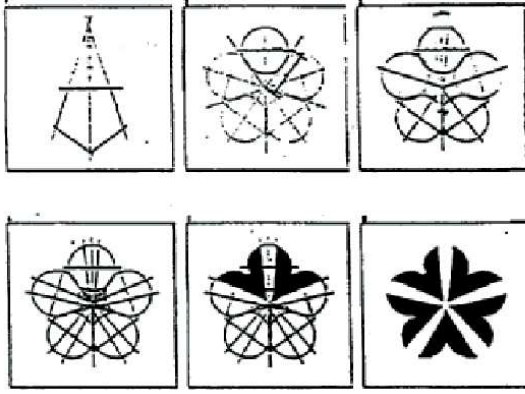
시 상징마크 작도법



- ① 한변이 주어진 정(正) 5각형 작도법에 의하여 역 (逆) 정5각형을 작도한다.
- ② 각변의 중점에서 대각선을 긋고 1/5 삼각형 사변의 길이를 A로 정한다.
정5각형의 한변의 중점 ○을 중심으로 0.5A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정원(正圓)을 작도한 후 같은 방법으로 5개의 연접원(連接圓)을 작도한다.
- ③ 1/5 정원(正圓)의 중점에 수선을 긋고 사변(斜邊) A의 0.6이 되는 길이를 정원 상단부에 지름과 나란하도록 작도하여 접점(接点) a, b를 얻는다. 점 a, b를 5개의 연접원의 접점의 하나인 c에 연결 연장하여 ④와 같은 도형을 작도한다.
- ⑤번 도형과 같이 필요한 평면을 차례로 완성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별표 제1호) 대전직할시기</p>  <p>대전직할시</p> <p>시마크: 황색 바탕: 청색 글 색: 백색 시마크(圓): 녹색</p>	<p>(별표 제1호) 대전광역시기</p>  <p>대전광역시</p> <p>1. 바탕: 노란색(PANTONE), 시 상징마크: 밝은황색, 글자: 백색 2. 시 상징마크의 좌도형을 별표 제1호로 같고, 주외곽선기(외곽선)는 실용마크 좌도형을 기준으로 하안쪽으로 1mm크의 백색선을 추가 선명하게 처리.</p> <p>시 상징마크 설정</p> <p>상징마크의 글꼴 형태는 단, 직선, 두껍고 글꼴을 상징하고 'ㅊ' 형태는 대전의 큰 'ㅊ' 자와 직통적으로 열려가는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외곽의 삼각 직선인 대전지붕의 속오, 조광, 정경, 문화, 문화, 유물과 유물자로, 밑좌에 포함하고 빛을 밝히고자 하는 대전 시민의 글과 이상을 표현하였다.</p>
<p>(별표 제2호) 문장(철인)</p>  <p>대전직할시</p>	<p>(별표 제2호) 문장(철인)</p>  <p>대전광역시</p>

현행	개정안
<p>(별표 제3호)</p> <p>휘장</p>  <p>(신설)</p>	<p>(별표 제3호)</p> <p>휘장</p>  <p>(별표 제4호)</p> <p>시 상징마크 작도법</p>  <p>① 원인이 주어진 것 ㉑ 작도법 작도법에 의하여 ㉒ 정사각형을 작도한다. ② 각변의 중점에서 외각선을 긋고 ㉑ 삼각형 사변의 길이를 ㉒로 정한다. 정사각형의 한변의 중점 ㉑을 중심으로 ㉒로 반지름을 반지름으로 정한 ㉒를 작도 한 후 같은 방법으로 ㉒의 정사각형 ㉒를 작도한다. ③ ㉒ 정사각형 ㉒의 중점에서 수직을 긋고 사변 ㉒의 ㉒에 있는 길이를 정사각형 주에 지름과 나뉘도록 작도하여 정사각형 ㉒의 ㉒를 얻는다. 정사각형 ㉒의 정사각형 한의 정사각형 하나인 ㉒에 반지름 반지름에서 ㉒의 같은 도형을 작도한다. ④ 정사각형 ㉒과 같이 필요한 정사각형을 작도한다.</p>

대전광역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2월 20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4년 2월 17일
3. 상정일자 :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5. 2. 20)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내무국장)

1. 제 안 이 유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표준화사업(CIP)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정된 시 상징마크를 시기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 요 골 자

가. 시기 및 표창장 등에 사용되는 문장, 휘장의 상징마크를 현대 감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상징마크의 꽃잎

형태는 밭, 터전,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고, “火” 형태는 대전의 큰 “大”자와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발전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쾌적한 삶의 터전인 대전지역이 국토·교통·행정·과학·문화·유통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빛을 발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의 꿈과 이상을 표현한 것임.

나. 개정코자 하는 시기는 바탕은 대전옥색(PT3275C),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옥외 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폭의 백색선을 주어 선명하게 제작토록 하였고,

다. 문장(철인)은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전 이미지를 재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4년 10월 시 상징마크를 새롭게 선정 변경함에 따라 시기등에 대하여 색상, 글씨, 규격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의 바탕색은 대전옥색으로 하였고,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으로 하였으며,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음.

그리고 옥외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폭의 백색선을 주도록 하였음.

또한 철인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토록 하였음.

금번 시기등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은 지난 93년 10월부터 추진된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CIP)의 일환으로 시 상징마크가 변경됨에 따른 것임.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시 상징마크를 사용하는 시기등에 대하여 이에 맞게 새로운 색상과 규격등을 규정하는 것인데, 규격은 종전의 규격과 동일하게 하였고, 다만, 색상의 변경과 함께 시 상징마크의 작도법이 새로 명시되었다 하겠음.

시기 색상등에 있어서는 이미 관계 전문가의 이미지 구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써 전체적인 색상, 글씨, 규격등 제반 구성면에서 우리시에 알맞는 내용이라고 보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